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진다.

The first time you're broken, you don't know you'll be healed again, better than before. (Sharon Olds)

당신이 처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좋게 다시 치유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샤론 올즈)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통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이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면 젖었던 흙이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이지요. 이는 자연현상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시련을 겪게 되면 하늘이 노랗고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련을 표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요. 자기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가 잘못되거나 누군가로 인하여 일이 잘못 전개되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는 치명적이 되어 그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큰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되니 마음마저 황폐해지며 세상이 다 끝난 것 같더군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 그 시련과 마음의 상처는 내가 다른 측면을 생각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적이 없었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인간 만사 새옹지마(人間 萬事 塞翁之馬)’라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당장은 좋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장마에, 찜통더위에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시련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지고 전의 상태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